

이 시대 최고의 CEO, 스티브 잡스

매년 최고의 CEO가 뽑히지만, 누가 최고일지 모르겠지 않을까. 젊은 창립자가 1980년대 자기 회사에서 죽거나 1990년대 후반에 죽거나, 다음 10년간 두 번의 죽을 고비와, 한번의 증권 스캔들, 항상 끼어드는 경쟁 제품들을 이겨냈다. 그리고 가끔은 불쾌한 태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됐고, 매번 억만장자가 되기도 했으며,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가치 높은 회사의 CEO가 되기도 했다. 다음에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비밀주의와 쇼에 대한 취향, 그리고 검증된 CEO의 영특함까지. 준비가 됐을 때에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CEO, 그가 스티브 잡스다.

에디터 | 이종수



Steve Jobs 1955~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한정돼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로 자신을 가두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다. 벌써 당신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외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간이식’ 받은 스티브 잡스의 화려한 컴백

2000년 1월 샌프란시스코 모스코컨벤션센터 맥월드엑스포. 컴퓨터백 서츠와 청바지 차림의 스티브 잡스가 등장했다. 그가 “이제 임시(interim) 직함을 떼겠다”고 말하자 청중은 벌떡 일어나 “스티브! 스티브! 스티브!”를 외치기 시작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2004년 8월, 그는 췌장암에 걸려 3-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죽음을 준비하며 신변 정리를 하라”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그로부터 애플의 아이콘처럼 된 ‘Think Different’ 캠페인으로 혁신을 이뤄낸 지난 10여 년은 오로지 잡스의 10년이였다. 이 간단한 문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거의 1년간, 그의 업적에 대한 리뷰가 나오기만 해도, 그것이 고별사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의 투병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월가도 들쭉였다. 잡스의 빈자리는 상상하기 싫다는 애플 신도들의 지지도 한층 뜨거웠다. 그래서일까?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올해의 인물 10인으로 선정했고, 네티즌 투표에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진짜 이력이 그러하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드리우는 충격도 거대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스티브 잡스는 너무 팽창돼 찢겨지기 직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분 단위로 분해된 세계 속에서 뻑뻑한 일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부담은 그토록 험겁고도 즐겁게 그를 익사 시키기에 충분하다. 무대공연 같은 키노트를 펼칠 때마다 늘 외치던 “one more thing”의 신호는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 됐다. 2009년 전반기에도 6개월의 투병기간 동안 그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제 그는 34,000명의 강력한 애플의 군대를 호령하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강력하고 창조적이며, 비밀스럽고 겁나며 오만한 조직이다. 잡스와 그의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애플을 세운 이후로 언

제나 그래왔다. 그가 나락에서 ‘희망’을 발견할 때마다 세상의 역사는 새로 씌어졌고, 이제 그는 돈과 명예, 열정을 모두 한 손에 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독창성과 열정으로 일궈낸 ‘시대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이제 컴퓨터와 음악, 영화에 이어 휴대전화 업계 평정에도 나섰다.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과 음악 파일을 돈 주고 사는 ‘아이튠즈 뮤직스토어(iTunes Music Store)’를 통해 음반사들에게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마련했듯이, 이제는 ‘아이폰(iPhone)’과 ‘앱스토어(Application Store)’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애플이 ‘물건’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갖고 싶고 사고 싶은 서비스를 파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티브 잡스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선지자가 맞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만의 독창성과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다.

췌장암을 극복한 모습으로 스탠퍼드대학 졸업식장에 나타나 축사를 했던 2005년 동영상이다시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축사에서 그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라(Stay Hungry, Stay Foolish)”는 화두를 던졌다. 2000년 그가 애플의 ‘임시 CEO’ 직함을 떼고 창업주이자 정식 CEO로 돌아와 무대에 섰을 때는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Imagine)’이 흘러나왔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나를 보고 몽상가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 그런 건 아니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애플은 그의 첫사랑이다. 쫓겨났음에도 다시 찾아갈 정도다. 덕분에 그는 쿨함과 세상을 바꾸는 힘, 모두에게 있어서 중개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애플과 잡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되고,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하는 이유다. ⑥

